공동체 소식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주님, 이 놀라운 성찬의 성사로
주님의 수난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체 성혈의 거룩한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입니다.

-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입니다.

- 교회는 해마다 6월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성심 대축일을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에 지내는 것은 예수 성심의 사랑이 성체성사와 깊이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라고 하였듯이, 예수 성심은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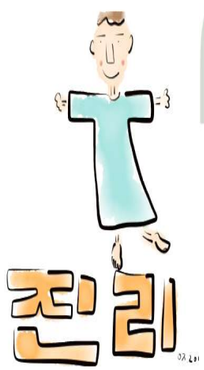
▣ 본당 '재무위원' 을 임명합니다.

- 신임 재무위원 : 감영진 라파엘,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 재무위원으로 봉사할 분들이 더 있어야 합니다.

▣ 본당 '평일미사' 에 참여하는 것은 신심생활의 근본입니다.

▣ 각 구역 반장님들은 반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식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진리 없이는 확고히 서 있을 수 없고 앞으로 나아 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빠진 신앙은 구원하지도 못하고 우리 발이 서 있을 견고한 기초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빛」 19항 | 그림 임의준 신부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163	221	506	200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 주	차민서 임마누엘	이원준 요한
차 주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최은미 아네스	박태주 로마노
		조지연 마리아
차 주	김명은 안젤라	김태중 예레미야
		김시연 엘리사벳

▣ 애찬 봉사자

금 주	정연숙, 박동희
차 주	조경희, 김계숙, 유수경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병철 베네딕도, 이내익 베드로
차 주	김병철 베네딕도, 이우영 가브리엘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6/11	54명	315달러	1,300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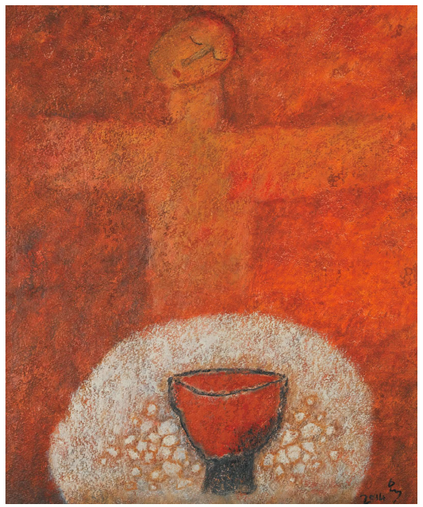
김정원, 김태선, 김호원, 차호섭, 홍순익
(총 5세대)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오늘의 전례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성찬의 식탁에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합니다. 빵과 술의 형상 안에 온전히 계시며 당신의 몸과 피로 우리를 길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며,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기로 다짐합시다.

그림 묵상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요한 6,51)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19-20)

성체 성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고 정점입니다. 성체를 받아모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살과 피가 되신 이 큰 신비는 사랑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습니다.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8,2-3.14ㄴ-16ㄱ
<하느님께서는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양식을 먹게 해 주셨다.>

화 답 송 :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네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
○ 주님은 네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
○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0,16-17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51-58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쉐 마

영원한 생명 주는 참된 양식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기꺼이 내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의 몸과 피를 매일 같이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야말로 우리 모두를 영원히 살게 하는 참된 양식입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신명 8,3의 말씀처럼 말씀이신 그분의 몸과 피는 우리가 매일 같이 청해야 할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먼저, 오늘 1독서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길을 잃고 헤매게 된 것은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시험하시려고 그들을 광야에서 굶주리고 목마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다가 광야를 사십 년간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하느님께서 이런 이스라엘마저 사랑하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며, 차돌 바위에서 물을 솟아나게 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집트 땅에서 먹던 고기와 빵에 속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계명을 따라 걷는 것만이 참으로 영원한 생명의 땅에 이르는 길임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사십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여호수아의 손에 이끌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판관 시대에는 이방 부족들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야 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약속된 땅을 잠시 차지하기는 하였으나 나라가 분열된 뒤 이내 다시금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북 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 남 왕국은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는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이 모두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느님께서는 성실하시어 약속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시기에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 먹을 양식이 가득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자비는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임을 밝힙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 곧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 같이 먹고 마심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지금 선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세상 모두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곧, 우리가 축복의 잔을 마시고 그리스도의 빵을 떼어 나누어 먹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여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피를 기꺼이 내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도 우리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걷는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들,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빵을 쪼개어 나누어 먹는 이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기념하며, 다시 한 번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닮아 자신의 몸과 피를 남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도록 합시다.

- 염철호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교리산책

식사 기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며 정성껏 바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식사 전과 후에 바치는 기도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이 내려주신 양식에 감사드린다는 의미로 감사와 은총을 뜻하는 라틴어 그라씨아(Gratia)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식사 전 기도 내용은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하느님께 준비된 음식과 음식을 나눌 사람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청하는 동시에 주신 선물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고, 물과 음식에서조차 주님께 온전히 의존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성호를 그으며 식사 기도를 정성껏 바쳐야 합니다. 이 단순한 몸짓은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기도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조용한 몸짓이 거리의 모퉁이에서 외쳐대는 몇천 마디 말보다 더 크고 웅변적이며 강력한 신앙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가톨릭교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짧은 위령 기도(慰靈祈禱: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바치는 기도, '연도'라고도 한다)는 식사 후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일상적으로 식사 전 기도는 잘 바치지만, 식사 후 기도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것도 하루 세 번씩이나 밥상 앞에서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것은 산 이와 죽은 이 사이에도 통공(通功, 라틴어 Communio)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는 신자들과 천국에서 천상의 영광을 누리는 이들, 그리고 연옥에서 단련 받고 있는 이들이 모두 교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기도와 희생과 선행으로 서로 도울 수 있게결합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인의 통공의' 교리입니다. "살아 있는 모든 이에게 호의를 베풀고, 죽은 이에 대한 호의를 거두지 마라"(집회 7,33)

- 김지영 사무엘 신부

복음묵상

머무름

음식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답니다.

좋은 음식은 좋은 영향을 주고
나쁜 음식은 나쁜 영향을 주고

영원한 음식은
영원히 그 사람 안에 머무를 것입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요한 6,58)

- 임의준 신부